

 금융위원회	보도 해명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9.12(수)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담 당 자	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	

**제 목 : 연합뉴스 9.12일자 「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
보험대리점 반발, “정부 과잉규제” 제하 기사 관련**

< 기사 내용 >

- 연합뉴스는 9.12일자 “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, 정부 과잉규제” 제하 기사에서
 - “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... (중 략) 사업비와 관련,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·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“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.”는 개정안을 마련했다.”라고 보도

< 해명 내용 >

-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·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